

# “6개월 차이로 억대 부담금” 재건축 곳곳 ‘울분·하소연’

## Q 르포 | 반포 현대아파트 재건축 가보니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이 충격에 휩싸였다.

서초구청이 지난 15일 반포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재건축 부담금을 가구당 1억3569만원을 산정해 통보해서다. 조합이 당초 예상한 850만 원보다 약 16배나 많은 금액이다.

올 1월에도 부활한 재건축 부담금 제도(재건축조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지난 주말 현장에서 만난 반포 현대아파트 조합원 A씨(79)는 “이 아파트가 지어질 때부터 살았는데 이렇게 얹울한 경우는 처음 겪는다”며 “이렇게 작은 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이 1억원이 넘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1987년에 지어진 반포 현대아파트는 1개동 80가구에 불과하다. 이 아파트 바로 옆에는 다른 재건축 아파트 단지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새 아파트 단지들에 둘러싸여 유독 눈에 띄었다.

반포현대 ‘부담금 폭탄’ 현실화  
가구당 1.3억… 예상액의 16배

반포주공1단지·대치쌍용2차  
부담금 3~4억 전망 ‘초긴장’  
매매가 하락 등 후폭풍 가능성

A씨는 “당초 바로 옆에 있는 삼호가든 4차 아파트랑 같이 재건축 하려고 했지만 입주기간 6개월 차이로 함께 재건축을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80가구에 불과한 반포현대 아파트의 1인당 부담금이 1억 원을 넘어서 만큼 향후 이보다 규모가 큰 단지의 부담금은 수 억 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와 강남구 ‘대치 쌍용2차’ 등 재건축 관리처분 신청을 앞둔 단지도 후폭풍에 휩싸였다. 이 아파트 단지들은 지난해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초과이익환수 대상이 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대상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아파트 전경. 가구당 1억3569만원 규모의 재건축 부담금이 산정된 서초구 반포 현대 아파트.



강남구 ‘대치 쌍용2차’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으로 1억5000만원을 예상했는데 이번 상황을 비춰볼 때 3억~4억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반면 부담금을 내서라도 재건축을 하겠다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현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매매가는 72m<sup>2</sup>가 17억 5000만원이다. 그는 “재건축 부담금 여파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 ‘대치 쌍용2차’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상용2차 아파트는 바로 옆의 우성아파트나 쌍용1차 아파트에 비해 재건축 속도가 빠르다. 현재 매매가는 102m<sup>2</sup>가 18억, 135m<sup>2</sup>는 21억원에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쌍용2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19일 ‘시공사 선정 1차 합동 설명회’를 마쳤다. 다음달 2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준비 중이다. 조합측은 시공사가 선정되면 3개월 이내 부담금 산정 자료를 해당 자치구에 제출해야 해야 하며 자치구는 한 달 안에 예정 환수금을 조합측에 통보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1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예정액 통지는 재건축조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규정된 절차로,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포 현대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오는 24일 총회를 열고 이번 서초구청의 재건축 조과이익환수제 부담금 통보에 대한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글·사진=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 한화L&C 친환경건자재로 中 의료 건축시장 공략

### 중국 ‘의료건설박람회’ 참가

한화L&C가 중국의 의료시설 건축시장 공략에 추가로 나섰다.

카운터 탑을 비롯한 벽 마감재와 바닥재 등 다양한 제품을 함께 선보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내 의료시설 건자재 분야에서 토클 인테리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기업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다.

한화L&C는 19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국제엑스포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2018 의료건설박람회’에 참가해 인테리어필름, 인조대리석, 상업용 바닥재 등 여러 제품을 선보였다고 20일 밝혔다.

회사는 유해물질 기준 검사를 통해 ‘실내’ 마크를 획득한 인테리어 필름 ‘보닥’을 비롯해 글로벌 친환경 인증제도인 NSF, 그린가드, SCS 등을 모두 획득해 친환경 자재로 인정받은 아크릴계 인조대리석 ‘하넥스’, 상업용 바닥재 등 20여 종의 마감재를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였다.

특히 납, 카드뮴, 수은 등 인체에 해로운 6대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아 이미 친환경 제품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보닥’은 PVC필름의 뒷면에 특수접착제가 처리돼 있는 표면 마감재로 시공이 편리하고, 짧은 시간에 공간을 깔끔하게 변화시킬 수 있어 학교, 호텔, 병원, 관공서 등과 같은 상업용 공간에 적합하다.



한화L&C 부스를 관람객들이 살펴보고 있다.

/한화L&C

한화L&C는 앞으로도 해외시장 개척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공격적인 해외 현장 세일즈 마케팅으로 해외 시장 확장과 다변화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도 두자릿 수?

### 11대 최저임금委 본격 출범

2020년 1만원 될려면  
내년 1148원 인상해야

### 노동계·경영계 입장차 팽배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가 류장수 부경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별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놓고 팽팽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0일 경영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역시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률이다.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한다고 가정하면 향후 2년간 인상률이 두자릿수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2년간 같은 비율로 인상해 2020년 1만원을 달성하려면 약 15.24%씩 올려 내년에 8678원, 2020년 1만원으로 책정해야 한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1060원(16.38%) 인상됐는데 향후 인상액을 내년 1148원, 2020년 1322원으로 더 높여야 하는 셈이다.

###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장 전수식

2018. 5. 17. 고용노동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 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장 전수식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는 2016년 최저금액 결정 때부터 최초 제시안으로 1만원을 내놓은 만큼 이번에도 최소 1만원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반면 경영계는 인상률을 최소화하거나 심지어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의 인상률·인상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는 산입범위다.

현재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월 1차례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전만을 토대로 최저임금을 계산하며 상여금이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사용자의 반발을 줄이고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급여의 범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산입범위를 얼마나 확대하느냐에 따라 기존의 최저임금과 비교한 실질 인상률·인상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노사는 이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영계는 정기상여금 외에 식대·교통비 등 각종 고정 수당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노동계는 이런 방식의 개편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일단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열리는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 김삼희 의원 등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다룬다는 방침이다./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 공정위, 인테리어비용 떠넘긴 bhc 제재

피해점주에 1억6300만원 지급  
과징금 1억4800만원 부과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2위인 bhc가 적발됐다. 또한 가맹점주에게 광고·판촉비 집행 내역을 늦게 통보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bhc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피해점주들에게 1억6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bhc는 가맹점주 27명에게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점

포환경 개선에 9억6900만원을 쓰게 하고 서법률이 정한 본부 부담금 중 일부만 주었다. 특히 가맹점주가 받지 못한 금액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bhc는 2016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광고·판촉행사별 집행비용 22억 7860만원 중 가맹점주가 부담한 총액 20억6959만원을 가맹점주가 내게 하고 선별 기한이 지난 후 가맹점주용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을 알렸다.

공정위는 bhc 튀김용 기름을 고가에 공급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민웅 기자 parkiu7854@

## 홈쇼핑 새내기 전용프로 ‘어서옵쇼’ 선봬

### 공영홈쇼핑 “진입장벽 낮출 것”

공영홈쇼핑이 TV홈쇼핑 새내기 전용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공영홈쇼핑은 매주 금요일 유망 중소 벤처기업의 TV홈쇼핑 론칭 프로젝트 ‘어서옵쇼’의 방송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

다. 첫 방송은 지난 18일 진행됐다.

어서옵쇼는 홈쇼핑 신생기업 입점을 고려해 예능 요소를 더했다. 배우 출신 이수완 쇼호스트가 협력 중소기업을 방문해 상품을 소개받고 현장에서 시연하는 ‘이수완이 간다’ 코너를 코믹하게 제작해 방영한다. 생방송 중에는 협력사 임직원

이 등장해 상품 특장점을 직접 소개하기도 한다.

공영홈쇼핑은 우수 상품을 개발하고도 판로를 찾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TV홈쇼핑 진입장벽을 속속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공영홈쇼핑 최성철 방송제작2팀 PD는 “어서옵쇼는 TV홈쇼핑이 중소기업의 중요한 판매채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했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